

3》연영과 추가등록금 실태



4》후마니타스 재도약 공청회



8》국제캠 기숙사 공실률, 만족도는 높다?



지난 11일, 국제캠퍼스 노천극장에서 2017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평화 음악제가 열렸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실용음악과 학생의 공연과 뮤지컬 <레미제라블>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무대가 꾸며졌으며, 환경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사진=이근한 기자)

출범식 마친 LINC+ 사업단 참여학과에 사업비 적극 지원 약속

LINC+ 사업 현장 점검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LINC+ 사업단 홍충선 단장이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학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홍 단장은 “현재 32개 학과가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다”며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과에게 많은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LINC+ 사업이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지역 산업 및 사회와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5월에 교육부로부터 사업에 선정돼 올해 총 40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는 사업단을 꾸리고 산하에 산학협력성과분석센터, 산학융합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혁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혁신센터를 설립했다. 우리학교는 LINC+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LINC+사업의 이행을 위한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행 1차 년도인 올해에 사업 진행 기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단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단과 센터 설립, 인사 발령 등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홍 단장은 “수도권 LINC+ 선정 대학 중 우리학교와

고려대만이 LINC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던 학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 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학교들에 비해 사업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 세부 사업 계획은 준비 단계임을 밝혔다. 지능형 산학협력 플랫폼인 Aladin(알라딘)은 학생의 전공, 이수한 과목 등을 입력하면 학생의 희망 진로에 맞는 커리큘럼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역량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Info21 사업단과 함께 개발 준비 중에 있으며, 2019년 상반기부터 이용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행복기숙사에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에 올해 안으로 오픈 랩을 완성할 예정이다. 오픈 랩은 학생 취업교육 및 진로상담, 창업 지원 등에 이용된다.

또한, 미래혁신원과 협력해 KHU valley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창업을 경험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학원 법인 산하의 의료기기 관련 자회사가 설립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관련 자회사 설립도 구상중에 있다.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단장은 “LINC+ 사업이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훌륭히 마무리 짓는다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LINC+ 사업으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국제캠 총학선거 전자투표 안건 폐기, 다시 원점으로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국제】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 상정된 전자투표 찬반 안건이 표결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장의 의결 선언 없이 폐기됐다. 재적인원 68명 중 42명이 참석한 지난 11일 확운위에서 전자투표 찬반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22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를 두고 회칙해석에 따라 가·부결 여부가 엇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의 쟁점은 전자투표 찬반 안건이 전자투표 ‘시행여부만 결정’하는 결정안이라는 주장

과 전자투표 시행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시행세칙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의 견해차이다. 허술한 안건을 제시한 총학생회의 실책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0장 선거시행세칙 개정 69조 개정의결’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운위에 상정된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한 표결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이번 전자투표 찬반안건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이라면 선거시행세칙 69조에 의해 전자

투표 찬반표결은 부결이다. 생명과학대학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회장은 “전자투표는 선거 시행세칙에 명기되지 않아 이를 진행하려면 시행세칙개정이 필요하다”며 “과반수 찬성 가결에 따른 일반정족수 회칙이 아니라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특별정족수 회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자투표 안건이 단순히 확운위 내 여론수렴만을 위한 것이라면 선거시행세칙개정 가결조건은 무의미하다. 공과대학 김영재(화학공학 2012) 부회장은 “이번 안건은 시행세칙개정에 대한 확정이 아니

다”라며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일반정족수 회칙에 따라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의견차가 커짐에 따라 휴회를 선언했다. 결국 다음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재논의 이전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찬반안건은 오는 16일과 17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해석에 관한 심의를 거쳐 18일 제4차 확운위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김진해(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7면



경쟁이 적절히 된 것도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턴십, 한국어도우미, 다양한 행사통역이나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며 기꺼이 자극을 받으려 노력한 것이 UN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다. 물론 타국의 낯선 환경, 문화 차이가 주는 혼란은 빚겨갈 수 없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인데, 동양권 문화가 아닌 분들에게는 침묵이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그에게 의외의 해답을 준 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옆자리 인턴에게 ‘나는 말을 많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니, 배우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배워서 습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경험하라는 뜻이었죠. 어쨌든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면 상대방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동기부여가 ‘호기심’인 그는 다음에 또 어느 나라에 있을지 궁금해 하는 중이다. “매번 떠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꿈을 꾸는 경희대 학생들을 위해 그는 파스한 조언을 건넸다. “국제기구, 국제개발 쪽 직업이 유동적이고 단기적이어서 그런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해요. 그러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크게 발휘되는 분야라고 느껴요.” 그는 UN에서의 6개월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가까운 미래, 국제기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을 이세연 학생의 행보가 기대된다.

Newsmaker

KHU-UN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자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UN DESA에서 보낸 6개월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 미래문명원에서 진행하는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의 국제기구 인턴 사원을 배출했다. 2016년까지 파견된 95명 중 11명은 현재 외국 기업 및 기구, 국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UN DESA(UN 경제사회국)에서 UN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온 이세연(평화복지대학원 2015) 학생에게서 뉴욕에서의 UN 생활 6개월을 들어봤다.

이 씨가 처음부터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것이 전 환점이었다. “해외 인턴십은 국제기구 진출의 첫 단계라 볼 수 있는데, 파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만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커요.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학교에서 도와줬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턴십을 다녀온 선배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이끈 UN 대체할 수 없는 경험으로

KHU-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선 총 3년의 치열한 평가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및 주요 경력, 인턴십 계획서, 영어성적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류전형, 영어 논술과 면접을 보는 2차 전형, 그리고 3차 전형인 영어 그룹 토론을 통과해야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마지막 3차 그룹 토론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의견이 대립해도 언쟁으로 번지지 않고 경청과 자기주장의

시선

사설

우정원 20년 전의 족쇄,
풀어낼 논의 시작해야

대학생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법적으로도 기숙사는 주택으로, 주거와 삶의 공간으로 인정받는다. 캠퍼스 곁에 삶의 공간을 짓는 것은 학생의 주거권과 더 나아가 보다 나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최소한의 의무다.

어느 서울 시내 대학과 같이 우리학교는 기숙사 문제로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 서울캠퍼스가 절대적인 호실 부족으로 신음하는 사이,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20여 년에 걸친 긴 숙박으로 인해 발생한 기숙사 문제에 마주하고 있었다.

국제캠퍼스 우정원 기숙사는 1995년 당시 (株)부영이 기증형식으로 우리학교에 건립을 시작했다. 97년 4월, 골조공사까지 완료됐지만 IMF 이후 경기 악화로 부영은 그간 공사분과 모든 권한을 학교 측에 위임했다. 학교 측은 LG건설(현 GS건설)과 협약을 맺고 우정원을 완공했다. 당시 돈으로 공사비용 1백 5억 원 중 55억 원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대신 완공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협약의 골자였다. 지난 7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촉발된 우정원 논란도, 시설에 비해 턱없이 비싼 기숙사 임사비도,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시설도 모두 이 20여 년 전 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학주보가 진행한 국제캠퍼스 기숙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학생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응답자의 8할이 기숙사의 비싼 비용을 지적했고 반 수가 노후된 시설을 꼬집었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캠퍼스 정문 건너 서천·영통지구 등 국제캠퍼스 인근은 급속도로 개발됐고 깔끔한 원룸 건물이 비운 뒤 죽순 자라나듯 빼곡히 자리했다. 2인 1실, 낡은 공조장치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흙바닥 기숙사에 지불하는 월세와 비슷한 금액으로도 정문 밖에서 편히 뭉 누일 방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숙사 비용은 기숙사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 사전은 기숙사를 ‘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와중에 구태를 지키고 있는 기숙사가 학생들의 선택에서 탈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논란 이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는 우정원 운영권 조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GS건설로부터 이를 조기에 돌려받아 기숙사비, 시설과 같은 이후 운영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주거환경에 잠을 청하고 있을 터이지만 조기 이관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기숙사가 현재 학생이 바라는 주거 환경에 못 미친다는 것은 조금 부풀려 말하면 그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격과 더불어 시설물, 식사, 방역 등 서비스는 주거권과 직결된다. 기숙사의 주거권은 그 본질로 인해 곧 교육권으로도 이어진다.

10여 년 전부터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민자 기숙사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학교가 우정원을 조기 이관받아 기숙사의 의의에 부합하는, 입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숙사로 탈바꿈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학교가 대학가에 남기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치과대학 박영국 학장

FDI 협의회 집행위원 당선

미디어·여론 동향 2017.9.25 - 10.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간호과학대학 50주년 기념 ‘춧불의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달 27일 열렸다.(간호대, **춧불의식으로 간호이념 다져/대학주보 온라인, 2017.9.27**) 춧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는 매년 진행되지만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간호과학대학 비전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학부생들은 춧불의식을 통해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다시 생각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과 임영진 의무부총장의 축사와 함께 그간 간호과학대학 발전에 공헌한 동문, 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초대 동문인 67학번들이 자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들려주는 특별강연도 열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LINC+와 후마니타스

두 마리 토끼 잡기

설지연 기자

iy0622@khu.ac.kr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학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위시로 한 기존 인문학 중시 기조에 최근 LINC+ 사업 선정으로 사회 수요에 맞는 현장 실습 능력을 증진하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LINC+ 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 육성 사업이다. 사업선정 대학은 사회 수요에 맞춰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보내고, 현장실무가 중점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쉽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학생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단계부터 어느 학과에 진학을 해야 취업이 잘되나 고민한다. 그 후에는 스펙 경쟁에 합류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LINC+ 사업의 목표는 그런 학생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대학은 국고를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치고 취업을까지 오르지 원·원으로 보인다. 더 불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학이 지원하고 기업이 성

장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창출되니 사업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 되는 점이 있다. 우리학교가 그간 취해왔던 기조가 무너질까 하는 걱정이다. 우리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며 인문학을 중시해 왔다. ‘취업사관학교’를 표방하는 여타 대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특색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다. 물론 일각에는 인문학을 중시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학생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은 당시 국내 대학 중에서는 획기적인 선택이었고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 LINC+ 사업 계획서 안에는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다. 산업체의 요구와 참여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한다는 것이다. 사회맞춤형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과의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한 쪽에서는 ‘인문학’을 강조하고, 한 쪽에서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 능력’을 강조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자체를 모두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변화에 맞게 대학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학교가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학생의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나섰으니 부단히 노력해 두 마리를 모두 손 안에 넣길 바란다.

독자들을 갈라놓는
유력 신문들의 페이스북 네티

세시봉

이수형 (편집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리처드 탈러 교수가 선정되며 그의 ‘넋지이론’이 다시금 화제다.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마케팅 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입이 가능한 넋지이론을, 기자는 작금의 언론행태에서 찾고 있다. 본래 유통접객업의 영업전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이론이지만, 독자반응이 즉각적인 페이스북에서는 특히 언론의 생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언론들은 ‘슬쩍 옆구리 찌르기’를 잘한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앞에 껌이나 초콜릿을 배치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고객회전율을 높이고자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 일간지도 그들만의 영업전략으로 독자를 조련한다. 페이스북은 언론 입장에서선 훌륭한 넋지이론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독자에게는 분열의 장과 싸움터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규정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독자를 양분한다. 독자는 선호하는 신문을 쉬이 바꾸려하지 않는다. 진보지가 어느 날 보수지의 논조를 뒀다고 해서 보수지의 독자가 진보지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강화하는 것을 영업전략으로 삼아왔는데,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이 넋지를 보다 쉽게 장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언론의 넋지 중 대표적인 것이 무보도다. 자신의 독자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슈거리는 보도하지 않는 식이다. 무보도는 엄연히 언론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다. 언론비평 전문지를 표방하는 미디어오늘이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따금 언론들의 무보도 행태를 비판한다. 페이스북은 무보도 행태를 감추거나 이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페이스북은 거대하나 2차 유통망에 불과하다.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기사 중 2차로 페이스북에 올릴 기사를 자신의 정파성에 맞게 선별한다. 문제는 언론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기사를 읽는 독자보다 페이스북으로만 기사를 접하는 독자가 월등히 많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 언론사는 독자들로부터 기사를 숨길 수 있다. 보도 자체는 이뤄졌으므로 무보도라고 비판하기 곤란해지는 효과는 덩이다.

독자로서 각 언론사로부터 적은 숫자의 기사를 접하는 탓에 무보도를 알아채기도 어렵다. 언론이 ‘큐레이팅’한 페이스북 기사에 익숙한 독자 중 무보도를 떠올려 내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독자뿐이다. 독자들은 꼭 전달받아야 하는 보도가 있다는 것은 잊은 채로 ‘그러려나’ 할 뿐이다.

무보도가 반복되고 독자 간 정보의 차이가 커질수록 독자들은 분열한다. 여기에 페이스북 관리자의 ‘페이스북에서나 가능한’, ‘비공식의 탈은 쓴’ 자극적인 마디가 첨가되면 분열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된다. 조선일보가 삼성 영업이익을 말하면 댓글은 정부의 ‘기업 죽이기’를 성토했고 한겨레신문이 같은 것을 말하면 댓글은 ‘이재용의 무가치함’을 비난한다. 이미 페이스북은 논의의 장이 아닌, 예민하게 대치하는 양쪽 여론을 먹고 자라는 언론의 놀이터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미레)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림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공금을 학생 개인 계좌로 … 학과, “해결 방안 마련할 것”

연극 트랙 ‘추가 등록금’ 논란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추가 등록금’이 개인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트랙은 전공 특성을 살려 타 과가 졸업논문, 졸업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진행한다. 정기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정기공연을 위해 연극트랙 학생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매 학기마다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한 명이 내는 액수도 매 학기 28만 원, 8학기 총 224만 원에 달한다. 4년 간 정기공연에 1번만 참여하는 사람도 224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연제작실습비를 8학기에 걸쳐 나눠 걷는 이유에 대해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한 번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기에는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재학생들도 이러한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졸업을 위한 공연에 사용되는 공금이 학생회장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졸업공연을 총괄하는 씨어터오픈장 김태운(연극영화학 2015) 씨는 “재학생이 90~100명 정도라 한 학기에 2000만 원 후반에서 3000만 원 초반까지 걷는다”고 말했다. 이 액수



는 학교 본부도, 과 사무실도 아닌 연극트랙 학생회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 된다. 김회장은 “한 때는 등록금 고지서에 ‘추가등록금’ 명목으로 공연제작실습비를 냈지만 학교에서 걷으면 세금을 내야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었고, 제 때 쓸 수 없어 학생들의 사비로 메꾸고 후에 돌려받는 문제들이 나왔다”고 학생회가 현금을 걷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 또한 “원래 학교에서 돈을 걷었지만 사용의 불편함이 제기됐고, 학생 요구를 수용해 학생회에서 걷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습비가 개인계좌로 관리되기에 별도의 회계감사는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접근성 역시 폐쇄 커뮤니티에만 게재돼 일부만 열람할 수 있는 상

태다. 익명을 요구한 연극트랙 학생은 “동기들끼리 걷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연 후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토로했다. 김회장은 “정기공연이 끝나고 난 후 공연과정과 결산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과 카페에도 올린다”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확인 결과 정기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에 통장내역과 결산안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정기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만든 카페이기 때문이다. 게시물의 조회수 또한 7회에 그쳤다. 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학과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공지 채팅방에 ‘카페에 결산안이 올라와 있다’고 공지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기공연을 하고 남은 돈의 행방도 알기 어렵다. 김 회장은 “2학기는 뮤지컬이기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1학기는 연극을 올려 예산이 남기도 한다”며 “남은 돈은 저축통장에 입금하고, 이후 학교에서 살 수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은 돈을 따로 모아놓는 통장 또한 씨어터오픈장 개인 명의이다. 2개의 통장이 있기 때문에 잔금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정현근(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걷는 돈은 사실 공식적인 예산이나 다름이 없어 학생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계좌 관리의 문제점에서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며 “돈이라는 것은 항상 투명해야 하고 명확해야하는데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비리도 끼고 사고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학과 공식적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과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학과 사무실로 통해 걷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학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다고 해도 이를 교비에 편입시켜 교비카드를 통해 사용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선택에 따라서는 과 사무실을

통해 걷는 방법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지난해 경영대학 학생회가 처음으로 개설한 법인 통장 사례를 참고해볼 만 하다. 경영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단과대 학생회 최초로 법인 통장을 개설했다. 법인 통장의 경우 다음 학생회에게 물려줄 수 있어 회계처리가 투명해지고, 배임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학생과 학생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경영대 학생회 최상현(경영학 2012) 전 회장은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 학생회로 돈을 납부할 때 훨씬 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이유를 밝혔다. 경영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는 2,400명으로, 작년 기준 신입생 오티 참가비를 위해 걷힌 돈만 3,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큰 단과대학이다. 연극영화학과가 1년에 4,000만 원을 걷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현재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학생들로부터 충분히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어 보인다. 김 회장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애석하리만큼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제작비를 걷는다”며 졸업공연을 위해 돈을 걷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기 졸업 패션쇼를 진행한 의류디자인학과에 경우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었지만 장부 공개를 투명하게 했다. 어쩔 수 없이 걷어야 하는 돈이라면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졸업공연 위한 공연제작실습비 … 타대 연영과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 서울 주요 사립대 연극영화학과(연극트랙/전공) 중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만 졸업공연(정기공연)을 위해 1~4학년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한 학기당 28만 원에 달한다. 타 대학이 모든 공연비용을 교비로 지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서울권 연극영화학과가 있는 대학 중 졸업공연을 하는 6개 대학(국민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을 대상으로 ‘졸업공연을 위해 걷는 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학교만 졸업공연비 명목으

로 돈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외의 소품비를 걷는 학교는 세종대와 국민대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비에서 기본적인 실험실습비는 제공받지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졸업만 학생만 자발적으로 추가금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8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걷는다”고 답했다. 국민대의 경우 “필요시 소품비 명목으로 걷는다”고 답했다.

한양대의 경우 매 학기당 만들어질 공연 개수를 정하고 대학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공연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해 예산을 내려주는 형식이다. 중앙대 역시 학과에서 공식적인 예산이 내려오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걷는 비용은 없다.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역시 정기공연을 위한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1년에 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아 수업 중 필요한 장비 구입과 수리에 사용한다. 연극영화학과 사무실 신정옥 조교는 “1년에 600만 원의 지원비로 학생이 설치할 수 없는 기자재, 학교에 없는 기자재나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연극트랙 학생회 김현실(연극영화학 2014) 회장은 “뮤지컬의 경우 음향기기 대여료로만 6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공연 제작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원비로만 공연을 제작하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타 대학과 비교해 우리학교 연극영화과의 두드러진 문제는 확정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씨어터오픈장 김태운(연극영화학 2015) 씨는 “가예산을 짜긴 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바뀌기 때문에 확정짓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확정된 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연에 참가하는 인원예 예산을 맞춰 걷을 수 없어 28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걷어 공연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8만 원의 책정기준 또한 모호하다. 김 씨는 “예전에는 조금 더 비쌌는데, 조정해오다가 현재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계속 그렇게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규모를 크게 하는 졸업공연은 보통 업계 관계자들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의 졸업공연 경우 그러한

《졸업공연비 재원 마련 현황》

대학명	학교 지원 외 걷는 돈	비고
국민대	△	소품비 필요 시
동덕여대	X	
성균관대	X	
세종대	△	4학년만 필요 시
중앙대	X	
한양대	X	
경희대	O	1~4학년 재학생

목적성과 멀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 씨는 “돈이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 졸업공연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러 규모를 크게 하려고 추가로 돈을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정시전형 모집 안내

구분	일정	내용
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7. 10. 12(목) 10:00 ~ 18(수)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100% 인터넷 접수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제출처 : 지원학과 소속 캠퍼스 대학원 행정실 (서울캠퍼스 - 본관 312호, 국제캠퍼스 - 예술디자인대학관 107호)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10.18.(수) 17:00 도착분까지 인정)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
② 서류 도착 확인	2017. 10. 13(금) 10:00 ~ 19(목)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http://www.uwayapply.com(인터넷원서접수대행업체) 로그인 → 내원서보관함 → 접수 원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클릭 → 오른쪽 중상 '서류도착 확인' 배너에서 조회 또는 http://gskh.khu.ac.kr (대학원 홈페이지)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자가 직접 확인
③ 전형일시	2017. 11. 11(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학과별 전형장소 공지 예정일 : 2017. 11. 9(목)공지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
④ 합격자 발표	2017. 11. 24(금) 15:00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
⑤ 합격자 등록	2018. 1. 8(월) ~ 12(금)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
⑥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형료 안내내국인 전형 - 석사 : 75,000원, 석박통합/박사 : 85,000원, 예체능계열 : 95,000원(수수료 포함)외국인 전형 - 전과정 : 127,000원※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hu.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전체 공지됩니다. (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및서류제출기간 : 2017. 10. 23(월)~10. 30(월) 17:00
-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www.uwayapply.com)
- 모집전공

구분	일정	내용
서울캠퍼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유아교육

- 지원자격 : 4년제대학졸업(예정)자및동등한자격이있는자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교육 4분야 이상)
-그외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은모집요강을참고
-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등
- 특전
-경희대학교졸업생의 경우동문 장학금 지급
-양성과정의 경우중등학교교사(2급)자격증 취득
- 문의처
-서울캠퍼스 : 02-961-0136~6
-국제캠퍼스 : 031-201-2021~2
-홈페이지 http://edu.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하나의 학교, 두개의 후마?

학사제도 차이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2011년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정식 출범 전까지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은 서울캠퍼스(서울캠) 교양학부, 국제캠퍼스(국제캠) 교양학부, 학부대학으로 나뉘져 있었다. 후마를 통해 분산된 관리체제를 총괄하고 학과나 캠퍼스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교양교육이 가능할 것이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캠과 국제캠 사이 남아있는 몇몇 후마 학사제도 차이가 후마 출범 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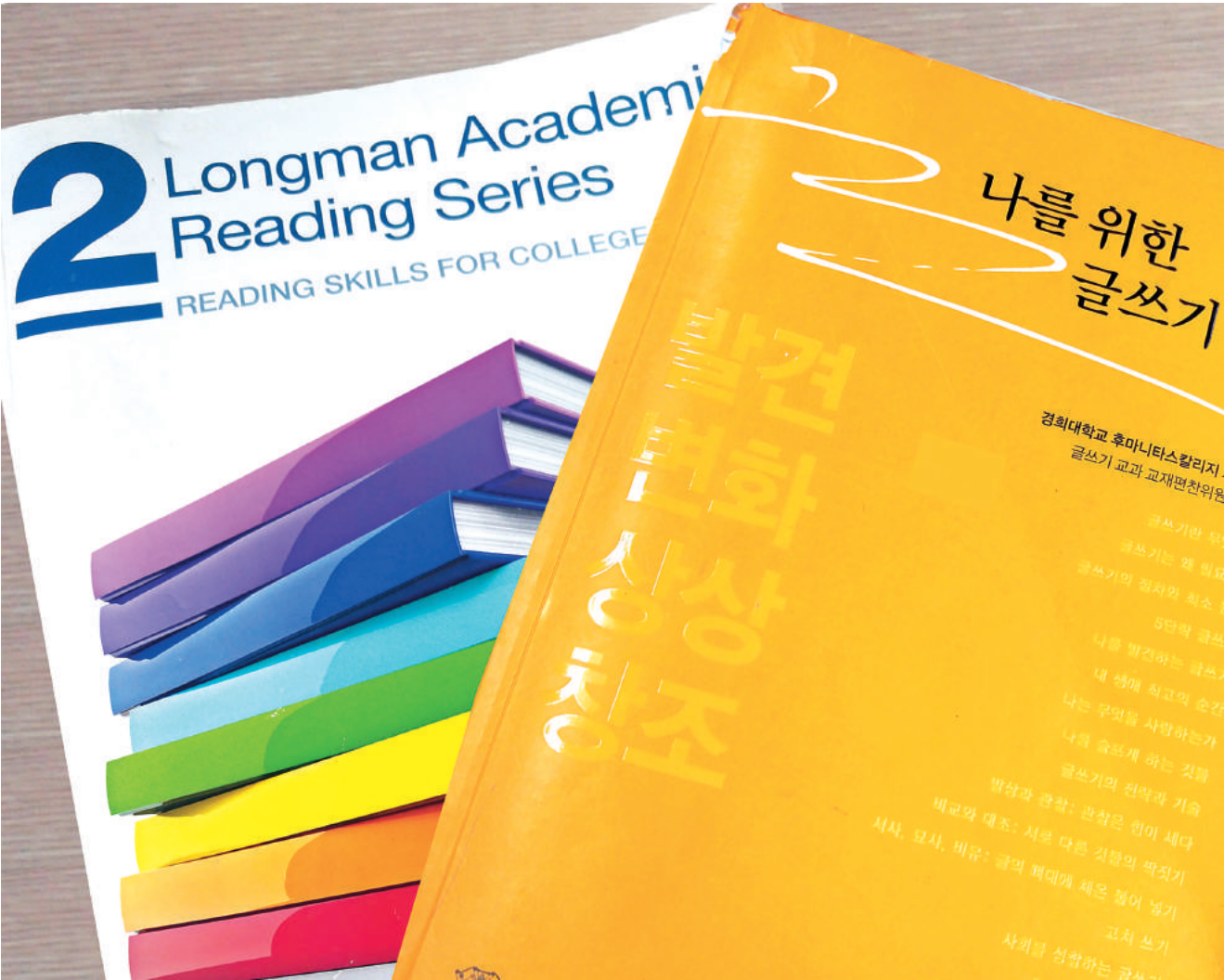
서울캠에선 후마 기초교양 ‘글쓰기’ 과목의 성적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반면, 국제캠에선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후마 설립 이후 계속된

성적평가 방식 논란

서울캠 역시 후마 설립 초기에는 글쓰기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이었다. 후마 출범 후에도 중핵교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교양 과목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동안에도 상대평가가 교양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지난 2010년 후마 설립 전 논의 과정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대학생위원회)’는 “후마의 기본 목적인 학생 개인의 소양을 기르는 것에 부합하도록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학점제도 보다는 ‘P/N’ 제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건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방식 전환을 요구했다. 2012년 3월, 서울캠 후마는 대학장 주재 회의를 통해 글쓰기와 시민교육 과목의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

국제캠은 서울캠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이었던 이영식(응용화학) 교수는 지난 2013년 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2년 논의 당시 국제캠 글쓰기 교수들 사이에서는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제캠 후마 측은 “2012년 당시 학점 인플레이션과 일부 교수가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 가능성이 우려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양 캠퍼스 교수 간 성적평가방식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했음을 밝혔다.



양 캠퍼스 사이 남아 있는 후마 학사제도의 차이가 출범 당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캠 글쓰기 과목 PD교수를 맡고 있었던 김진해(국어국문학) 교수는 “글쓰기 과목에선 경쟁보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의 협력, 상호작용이 강조돼야 하는데 상대평가 방식으론 그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제캠도 함께 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개강 이후 국제캠은 여전히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며 “국제캠은 서울캠과 달리 학생회 측으로부터 성적평가방식 전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적 평가 제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양 캠퍼스가 후마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발췌한 ‘후마 재도약을 위한 특별보고서 위원회(특보위)’에 참여한 국제캠 후마 이준태 교수는 “아직까지도 양 캠퍼스 사이에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가, 전공과 교양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여전히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캠 국제캠 사이

후마에 대한 시각 차이 인정

특보위는 양 캠퍼스 학사제도 차이로 인해 하나의 후마가 두 개로 운영됐음을 지적했다. 특보위 이준태 교수는 “중핵교과 의 경우 ‘누가 더 많이 고민했고 덜 고민했느냐’를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과목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특보위를 통해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제캠 후마 교수진의 견해가 지난 2012년 성적평가방식 전환 논의 당시 견해와 사뭇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준태 교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중핵교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양

교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위를 총괄하는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또한 “전면적으로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며 “결국은 절대평가 혹은 P/N방식의 성적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주장해 교양 과목 평가방식에 변화가 따라야 함을 시사했다.

강명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씨는 “서울캠은 가능하고 국제캠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 것 같다”라며 “캠페스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양 캠퍼스 간 학사제도 차이를 줄이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교양 영어에 대한 학사제도 또한 양 캠퍼스 간 차이가 있다. 서울캠은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TOEIC)을 통해 후마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캠은 ‘국제화 추진 전형 입학자’, ‘외국대학, 외국대학 부설기관, 외국 공인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

수자’,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Intensive Program이수자’ 등에 기초교양 영어교과 이수를 면제한다. 하지만 국제캠에는 영어교과 이수면제 제도 자체가 없다.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영어 과목의 수준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러한 학생들로부터 이수면제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4년에 이수면제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캠 후마 측은 “이공계 및 예체능계가 많은 국제캠의 학과 특성을 고려해 이수면제 제도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국제캠에 해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캠에만 존재하는

영어과목 이수면제 제도

2014년 논의 당시 국제캠 대학영어 PD교수를 맡았던 신명아(글로벌커뮤니케이션)교수는 국제캠이 이수면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 다르게 설명했다. 신교수는 “대학영어 과목은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영어실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어느 정도의 실력만 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문지식 습득에 저해된다고 생각해 학장님과 상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씨는 영어1, 2 과목을 들을 당시 국제캠에도 영어과목 대체 제도가 있었다면 대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영어교과는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이라 생각하는데 영어전공자나 높은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학점을 투자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낭비라고 느껴진다”며 “국제캠에도 국제대학이나 외국어대학 학생 그리고 그 외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제도를 서울캠에서만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캠퍼스라는 학교 기조에 모순된다고 생각하며 국제캠캠퍼스 학생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입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출범한 후마는 이번 특보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하나의 교양’을 위한 재도약을 앞두고 있다. 설립 초기 후마가 세웠던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 양성’의 목표가 양 캠퍼스에 모두 공유돼야 할 것이다.

2017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1. 개요

가. 훈련대상: 2017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7년 훈련 불참자 전원
나. 훈련장소: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네비게이션: 바른고기 검색)
다. 훈련일자

훈련 일자	훈련 대상	시간
11월13일(월)	• 국제대학 • 공과대학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응용과학대학	09:00~18:00
11월14일(화)	• 예술디자인대학 • 전자정보대학 • 체육대학 • 일반 / 특수대학원 • 2시간 대상자 전원(작게 6시간 이수자)	

2. 준비물

가.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여권) 필히 지참할 것

3. 교통안내

가. 학교 지원차량: 학교정문 출발(7:45분) →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 도착(8:5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군부대 차량(미니버스 24인승) 용인버스터미널에서 08:00, 08:30 출발(2회 운운)
나.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4. 유의사항

가.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나.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다.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라. 입소통제 지침: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 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마. '17년부터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 계좌잔 가능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바.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임에 유념
※ 금번 보충훈련 불참자가 추후 보충훈련에는 차관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 전원 참석 요망
사. 기타 훈련에 의문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 예비군 연대장

2017년도 향방기분 1차 보충훈련 안내

1. 훈련대상: 2017년 향방기분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중 향방기분훈련 대상자
2. 장소: 금곡예비군훈련대
3. 일정

훈련명	훈련일자	대상	소속
향방기분 1차 보충훈련	9.28(목)	1~3시간 대상자	소속 구분 없음
	10.13(금)	4~8시간 대상자	문과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11.3(금)	4~8시간 대상자	교원, 대학원(일반/특수/전문), 간호학대학, 경영대학, 무용학부, 미술대학, 법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자율전공학과, 경영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4.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45인승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5.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다.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등)불참자 훈련입소 불가
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마.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바.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사. 공결처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훈련종료 후 다음 근무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아.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자.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차.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수정
카.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보도

입학정원 3년 새 5.1%감축, 추가 감축은 ‘신중론’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입학정원이 기존보다 5.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4,915명에서 2017학년도 4,663명으로 줄어 들었다. 우리학교는 2014년 10월에 공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 초안에 맞춰 2년에 걸쳐 입학정원의 4%를 줄이겠다는 자체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평가에 대비해 자체 정원감축을 통해 선제

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다가오면서는 지난번과 달리 대학가에 정원 조정에 대해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향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응해 선제적인 인원감축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2014년 평가초안이 공개되고 이듬해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부실대학난인’ 논란을 낳았던 교육부의 대학평가로, 대학을 등급별로 나눠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제한과 정원 감축을 강제했다.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교육부가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D등급 판정을 받은 강원대는 총장 사퇴와 더불어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했다. 각서는 D등급 조기해제를 조건으로 총장 선출에 대학 구성원 외 대학정책평가단 200명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황에서는 우리학교의 정원 자체 감축안을 불가피했던 선택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당시 미래정책위원장을 맡은 남순건(물리학) 교수의 발언을 빌리면, 우리학교의 자체 입학정원감축은 “정원감축을 최소화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

이었던 것이다. 학교와 학생의 입장 사이에는 온도차가 컸다. 당시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박이량(사학 2009),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회장은 각각 “모든 학과가 일률적으로 한 두명씩 줄이도록 하는 것은 균등분배가 아니다”, “소수가 입을 타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내년 상반기로 다가옴에 따라 대학가에선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의견수렴 설명회에서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성격 재정의 ▲정원감축 규모 ▲결과활용 ▲평가방식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원감축에 대한 우리학교의 태도에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정책위원 권오병(경영학) 원장은 “지난 자체 감축안은 프라임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을 전제로 했다”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정원 감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놴다.

열람실 발권 어플 나왔다

민지호 기자 zkxoxj@khu.ac.kr

【서울】중앙도서관은 11월 초 ‘열람실 좌석 발권’ 기능과 ‘도서관 시설 예약’ 기능, ‘모바일 이용증’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도서관 앱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 열람실의 좌석 연장만 가능하던 ‘Lib+’ 앱은 신규 앱이 출시되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경희대 도서관 이용증’을 설치하고 중앙도서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캠퍼스 구분 없이 새로운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앱의 출시로 열람실 좌석 예약과 발권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앱의 ‘좌석 예약’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좌석을 선택한 후 해당 도서관 열람실 외 이파이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예약했던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유현경 직원은 “도서관 앱

을 통해 좌석 예약이 가능한 시설이 전자정보실의 PC좌석까지 확장되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앱을 이용해 학생증 대신 ‘모바일 이용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학생증을 대신하여 도서관의 출입과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이용증의 QR 코드는 캡처화면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앱을 실행시켜서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모바일 이용증을 이용한 도서 대출은 데스크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무인대출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 직원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도서관 앱이 시험기간에 발권기 앞에 줄을 서며 기다렸던 학생들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석화로 몸살 앓는 푸른솔 열람실

(사진=이후승 기자)

빅문교수 실언논란 전례 없는 5만뷰 ... 댓글은 “후마니타스는 어디에”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달 29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수업 중 학생과 교수 사이의 대화 논란을 다룬 기사가 조회수 52,000회를 기록하고 우리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 약 17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구성원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논란은 빅문 수업에서 우주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모(물리학) 교수와 심하린(식품영양학 2016) 학생이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5일, 심 학생이 정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 정 교수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은 “실례지만 수업준비를 하고 오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되물었고 정 교수는 “수업 준비를 전혀 안하고 온다”라고 답했다. 그 후 학생이 “읽어는 오시나요?”고 물었고 교수는 “읽어도 안와요”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대화는 학생이 수업도중 강의실을 떠날 때 까지 계속됐다.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교수의 실언은 매년 한두 번꼴로 논란을 만든다. 실언의 종류도 성차별적 발언, 인격모독적 발언 등 다양하지만 이번 논란처럼 구성원들의 큰

관심은 이례적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1만여 명이 참여한 미래대학리포트2015에 이미 해답이 있다. ‘50년 후에도 대학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의 핵심요소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학생(2,774명)이 ‘교수와 학생 관계’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2,134명의 학생이 ‘학문의 타월성’이라고 답했다. 미래리포트2015는 이에 대해 ‘복수응답 분석 결과, 상위 46%에 달하는 1위부터 4위까지의 답변과 함께 선택된 응답이 ‘강의의 질적 우수성’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은 교수와

학생간 교류 강화와 동시에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미래의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는 2,622명의 학생들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스승’이라고 답했고 1,704명의 학생이 ‘창의적인 전문지식 연구자’라고 답했다.

학생들이 교수와의 인격적 관계형성과 더불어 강의의 질에 큰 갈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관심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올해 2월, 우리신문의 ‘2017학년도 우선 정책 순위’ 설문조사에서도 45.3%의 응답자가 ‘교육의 질 확대’를 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논란이 큰 반응을 얻은 것은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 ‘강의의 질’ 등 학습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표출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논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감수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학생들의 오랜 요구에 학교가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11.06.(월) ~ 12.15.(금)

■ 접수기간 : 2017.10.16.(월) ~ 2017.11.03.(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10.31(화), 11.01(수) 17:15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1.01(수)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 Academic Writing Workshop		Screen English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 / Level Up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 고급1 /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화, 목) 07:45~08:45	오전반 (월, 수) 07:45~08:45	오후반 17:30~19:00 (월, 수)		오후반 19:00~20:3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2		초급1	
	수강료	90,000원		12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오후반 18:30~19:5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오후반 18:00~19: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불법복사, 복스캔 NO!

전전한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응원합니다!

저작물 불법 복제

지식재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작권, 우리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정품 콘텐츠는 <저작권OK>지정업체에서 구매하세요.

☎ 대표 전화 1588-0190
홈페이지 http://www.kcoba.or.kr/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서지정보협회

야음정음, 문자의 반격

전문가 칼럼

김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새로울 것 없고 그저 새삼스러울 뿐이다. 역시나 올해도 말의 파괴와 몰락을 걱정하는 잔소리꾼들의 목소리가 높다. 1년에 한 번 서는 장날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병든 한글과 한국어를 걱정하고 이를 망가뜨리는 ‘젊은 것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한다. 말에는 모종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름답고 순수하며 필연적으로 그렇게 써야만 하는 상태’를 만나며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말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눈으로 보면, 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귀착될 때 위험하고 재미없다.

‘외국어 남용, 신조어, 줄임말, 사물 존대, 외계어, 보그병신체, 급식체’에 이어 올해의 죄인은 ‘야음정음’이다. 악필인 사람은 안다. 내가 쓴 글씨를 다른 사람이 잘못 읽을 때의 낭패감을, ‘하’를 ‘다’로, ‘발’을 ‘박’으로, ‘모레’를 ‘오레’로 읽고, 급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벌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읽으면 불쾌를 집어던지게 된다.

야민정음은 이런 오독을 새 표기법의 반열로 격상시킨다. ‘맹맹이(맹맹이)’, ‘커여워(귀여워)’, ‘경희며(경희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세종대왕(세종대왕)’, ‘유재석(유재석)’, ‘광광 우럭파(광광 울었다)’, ‘괴꺼쑈(괴꺼쑈; 괴가 거꾸로 쑈는 다)’, ‘박근혜(박근혜)’, ‘근의 공식(근의 공식)’, ‘앵귀리지(앵귀리지)’, ‘뽕선(뽕복선)’, ‘뜨뜨(비버)’, ‘옳옳(폭풍)’, ‘롬곡(눈물)’. 이런 예들은 비슷하게 생긴 문자를 비틀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문자의 안전한 질서를 흔든다(맹맹이). 음절을 자음 하나로 바꾸기도 하고(박근혜), 두 음절을 한 음절에 구겨 넣기도 한다(뽕선). 90도로 기울이거나(뜨뜨) 아예



야민정음은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가 말소리와 어긋나고, 이미지가 문자가 되는 등,

문자의 반란은 계속될 것이다.

180도 뒤집어야 읽히는 것(옳옳)도 있다. 빠르게 읽히던 글은 아리송해지고 서걱거린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기능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에게 ‘문자’는 뭔가? 아마도 문자는 말소리를 담은 그릇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문자의 원래 기능은 말과 무조건적으로 밀착되어 있다. 문자는 말을 기록하는 수단일 뿐이다. 말이 먼저고 문자는 나중에이다. 문자는 목소리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야음정음은 이러한 상식에 반격을 가한다. 문자가 언어를 반영한다는 상식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다. 야민정음은 언어를 적는 문자라는 서구의 오래된 개념에 도전한다.

문자는 단순히 구술언어를 그대로 전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자가 말소리의 노예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문자는 말소리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문자 자체가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되어 문자의 고유

성을 잃어버린다. 주변을 둘러보라. ‘2econd floor’, ‘7even’, ‘우리는 별처럼 별나다’, ‘眞한 맛’, ‘OO에 가면 多 있다’.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한자와 한글, 발음과 문자가 절단되고 뒤엉켜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광고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광고 중에는 이렇게 문자가 갖는 기존의 기능을 비틀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다. 뉴욕의 홍보 문구로 5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I ♥NY’은 이미지가 문자적으로 쓰였다. 문자가 말소리와 어긋나고, 이미지가 문자가 되는 등, 문자의 반란은 계속될 것이다. 야민정음은 문자가 말소리와 그것에 자동적으로 부착된 의미(기)와의 관계를 절단하고, 의미가 절단된 채로 떠다닌다. 문자가 말의 영역이 아닌 이미지의 영역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야음정음이 만들어진 경로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읽은 문자에 대한 오독이 있고, 다음에는 타인에게도 자신의 오독을 노골

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이다. 독자로서의 오독에서 출발하여 저자로서 오독을 요구하는 이중적 전략은 우리에게 문자의 성격에 대해 다시 묻는다. 말하기도 화자와 청자가 각자 처한 상황이나 위치, 지식과 견해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이해한다. 언어적, 언어외적 맥락은 서로의 ‘의사’를 배반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게 한다. 오독으로 이루어진 소통은 그래서 적당한 타협이나 얼버무림, 또는 실패로 끝난다. 야민정음은 문자의 오독을 전시함으로써 문자와 말소리의 자명한 관계를 문제시한다.

어찌 보면 야민정음에서 말소리(발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른다. ‘맹맹이’를 ‘맹맹이’로 읽을지, ‘맹맹이’로 읽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박근혜’는 ‘박리을혜’로 읽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애초에 이들에겐 말소리(발음)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구성과 조합만이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문자 자체를 비트는 것으로 끝이지 ‘문자-말소리’ 간의 체계적 관계나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다.

망치가 없어 벽돌로 못을 박았다고 해서 벽돌이 타락했다고 하지 않는다. 문자가 말소리와 밀착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을 자극하며 나른한 오후를 일깨운다. 더구나 망치가 변연히 옆에 있어도 굳이 벽돌로 못을 박는 뼈빠한 사람들이 있어 좋다.

※ 야민정음(야음정음) : 최근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는 은어로, 어떤 단어의 글자들을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참여마당

김동현
(사회학 2016)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식’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사연이 제보됐다. 학과와 학번, 소속 동아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이름 두 글자까지 공개하며 한 사람을 고발한 대자보였다. 글쓴이는 자신이 대상자의 전 애인이라고 밝히며 대상자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했다. 글은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논란을 불렀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이 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이 게시된 커뮤니티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글 전부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당사자를 비난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9월 중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일방적인 폭로로 시작된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이 그렇다. 폭로는 순식간에 퍼졌고 버스 기사는 구설수에 올랐다. 심지어 이틀날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해당 버스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CCTV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버스 기사는 규정대로 버스를 운행했고, 아이가 승객에게 떠밀려 내렸다는 아이 엄마의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사건 발단의 책임은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글을 작성한 목격자에게 있었다.

9월 말 업무에 복귀한 버스 기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쯤 되니 240번 버스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싹 사라졌다”며 “남은 건 상처 입은 나 자신 뿐”이라고 전했다. 당시 여론은 버스 기사를 얼마나 몰인정하고 상식 없는 인간으로 매장해버렸는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 목소리는 기사를 욕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혔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만 한다. 버스 기사가 말한 대로 분별없는 마녀사냥이 남기는 것은 상처 입은 당사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동일한 내용의 두 기사에 한 쪽은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한 쪽은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후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똑같은 기사를 읽은 이들의 반응은 기사에 달린 댓글과 일치했다. 군중심리 때문이다. 군중심리는 개개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위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동아시아처럼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사회일수록 곳곳에 더 만연해있다.

한국 시민들이 이제는 사실관계도 모르는 주장들에 함부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독재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히틀러의 사려가 보여주듯이, 군중심리가 국가 중대사와 결부되었을 때 그 결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시류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우려했던 중우정치의 현실화가 아닐까.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이 현명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과분하지 않은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것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기숙사를 나오는 학생들… 높은 기숙사비 때문?

기숙사 공실률 원인 분석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국제】 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기숙사 공실률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정원 공실률은 2015년에 0%로 빈 방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0.96%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큰 폭 상승한 2.47%를 나타냈다. 제2기숙사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2015년에는 0.5%, 2016년에는 0.41%에 불과했던 공실률은 2017년 무려 6.47%로 치솟았다. 학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숙사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설문을 통해 알아봤다.

기숙사 측은 매 학기 퇴사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우정원·제2기숙사 퇴사생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정원과 제2기숙사의 만족도는 각각 50.9%와 48.5%로 나타났다. 생활관 유종근 계장은 절반에 가까운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공실에 대해 “수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발달하는 교통요건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일대에 늘어나는 원룸촌도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대학주보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기숙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와 달리 기숙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에서 각각 퇴사한 학생들은 가장 큰 퇴사 이유로 비용(제2기숙사, 60.3%)과 노후된 시설(우정원, 50.2%)을 꼽았다.

가장 대표적인 불만은 ‘비싼 비용’으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유 계장은 “서울캠퍼스에 새로 만들어진 행복기숙사의 가격이 국제캠퍼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반발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수도권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아질수록 기숙사비 인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국제캠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천동 일대 원룸은 평균 7.9평, 38만원 거래되고 있다. 우정원은 2인실 기준 월 35만 원 정도, 제2기숙사는 월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원룸으로 나가면 기숙사와 비슷한 비용에 훨씬 편하고 쾌적한 시설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식 답변으로도 ‘시설과 환경에 비해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한 응

답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 독보적인 장점이 없다’고 했다.

식단에 대한 불만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자체 설문조사에서 우정원 식단은 53.9%, 제2기숙사 식단은 60.9%의 불만족 수치를 보였다. 대학주보 설문조사에서도 주관식 의견으로 ‘가격이 비싸도 괜찮으니, 그에 맞는 시설과 식단을 제공해 달라’, ‘학식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식단’과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식단의 가격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학생 의견에 대해 기숙사 측은 “사실 식단이 가장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기숙사 식단이 인상을 위해서는 총학생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임 총학생회는 이를 거부했다. 유 계장은 “지금 가격으로는 현재의 식단이 최선이다”며 “가격이 인상되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식자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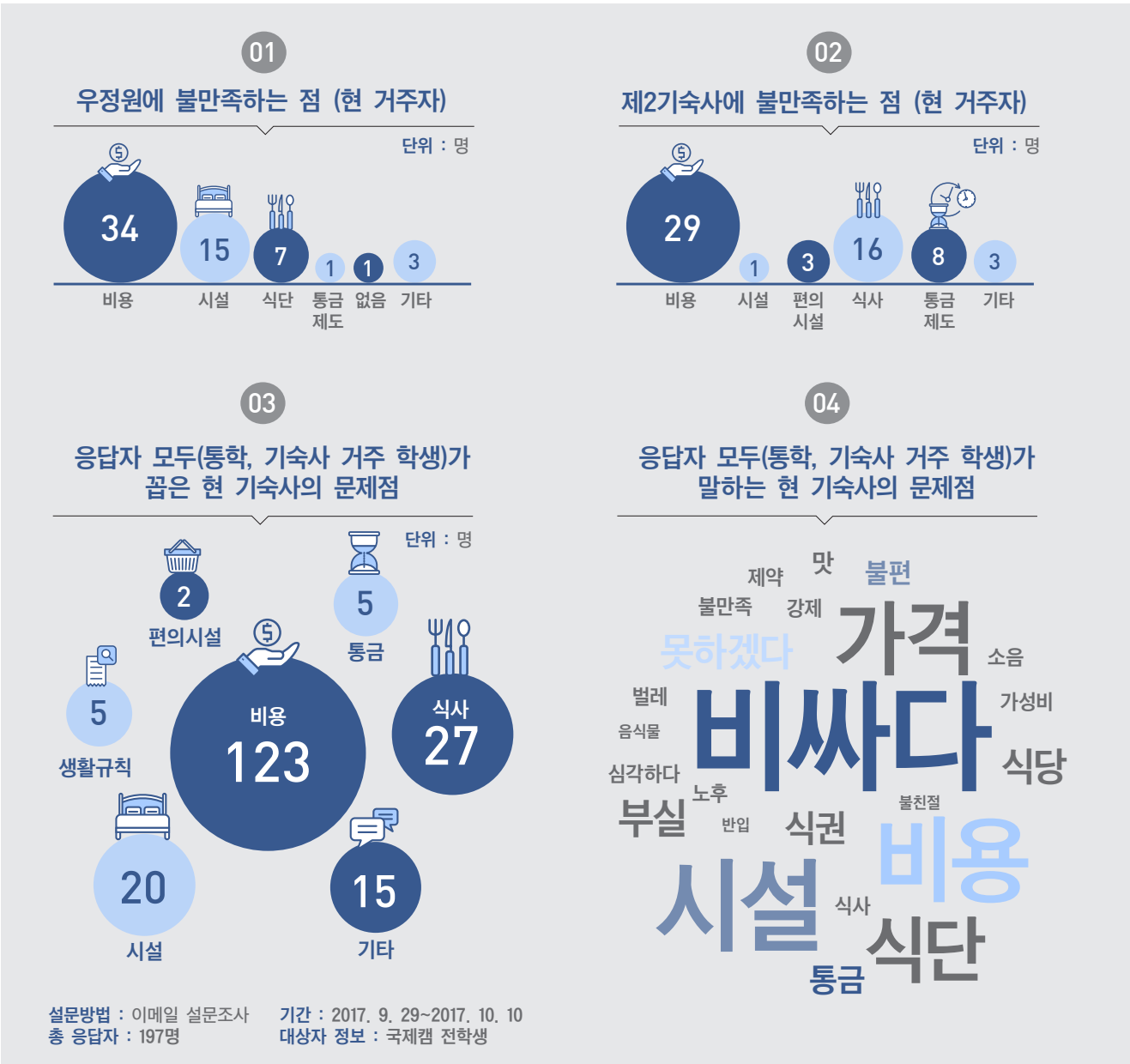
기숙사 측은 내년부터 기존 식권 단체 구매 할인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학기 초 식권을 대량으로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회관 식당처럼 정가 3,200원에 식권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체 구매에 제공하던 할인을 폐지해 상승분만큼 식자재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정원을 나온 학생 중 50.2%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2월까지인 GS건설과의 기숙사 운영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학교 주도로 시설·환경 개선이 힘들다. 기숙사 측은 “우정원의 경우 환경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 티가 나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하며 학생들을 불만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기숙사 측은 “주어진 여건에서 학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며 “불만 사항을 개선해 주면 개선점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방에서 벌레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통금을 만든 것이지 절대로 통제 목적이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의 불만을 접수하고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고민이라는 기숙사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간극은 꽤 넓어 보인다.



우정원 논란 일으킨 노컷뉴스, 반론보도 게재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언론중재위원회가 노컷뉴스의 우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왜곡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노컷뉴스에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 동안 백억 채권 경희대’를 보도한 노컷뉴스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우리학교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리학교는 해당 보도가 있는 직후인 지난 7월, ‘해당 기사는 오보이니 기사정정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언론중재

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언론중재위는 우리학교가 요구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를 명령했다. GS건설이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니 오보로 인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노컷뉴스가 이 사실을 우리학교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학교의 반론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노컷뉴스가 게재한 반론보도는 다음과 같다.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7일자 사회면 ‘기숙사비 왜 비싼가 봤더니… 14년 동안 백억 채권 경희대’, 7월 14일자 사회면

‘14년간 100억 채권 경희대, 기숙사 ‘편법’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희대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측은 “GS건설로부터 발전기금 항목으로 받은 100억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사용수익권)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며, 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임대료는 기숙사 운영자금(각종 보험, 인터넷 회선료 등), 장학금, 기숙사 수선비 등 전액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HMC투자증권이 **현대차투자증권**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이름, 새 마음으로 고객님의 내일을 함께하였습니다.